

역전사 효소저해제 포기 “속출”

93년 네비라핀 등 개발중단 … 선경제품 상품화 의문시

최근 국내기업이 개발한 역전사 효소저해 에이즈치료제 계통이 선진국에서는 이미 내성문제로 용도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선경인더스트리(대표 김준웅)가 막대한 자금을 투여해 개발한 역전사 효소 저해제가 선진국의 경우 내성발현이 문제시돼 대부분 임상시험단계에서 상품화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Boehringer-Ingelheim은 93년 대표적 비핵산 유도체인 Nevirapine을 임상단계에서 내성발현으로 개발을 포기했고, Merk·Upjohn 등도 마찬가지로 이유로 연구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비핵산계열의 에이즈치료제중 가능성 있게 임상시험중에 있는 것은 Upjohn의 벨라비리딘 밖에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90년대 들어 이처럼 역전사 효소 저해제가 문제가 있는 물질로 속속 드러남에 따라 세계 유수의 제약기업들은 새롭게 단백질 분해효소 저해제 쪽으로 연구타켓을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Roche의 경우 RO318959라는 단백질분해효소 저해제를 개발, 3상단계에 있어 조만간 상품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함께 Merk와 VORTEX도 동일계통에서 L735524, VB11478이라는 신물질을 각각 개발, 역시 임상시험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발표된 선경인더스트리의 역전사 효소 저해제는 국내에서는 처음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는 있지만 三陸제약의 HEPT치료제의 변형일 뿐만아니라 사양화되고 있는 품목이라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에이즈치료제의 핵심부분인 체내흡수율에 대한 신뢰할만한 임상자료를 첨부하지 못했고 역전사 효소 저해제 단독의 돌연변이 실험 결과도 빠져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기존 핵산계열의 AZT 등에 비해 월등한 약효를 나타냈고 병용화학요법시 AIDS 바이러스의 약재내성 극복에도 효과가 높다는 점에서 기대되고 있다.

93년 현재 에이즈치료제 시장은 AZT 12억달러를 비롯해 총 14억달러 수준이며, 연평균 30%씩 신장하는 높은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선경인더스트리 외에 국내에서 에이즈치료제를 연구개발하고 있는 기업은 럭키를 비롯해 종근당, 화학연구소 등 3 4개 기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업중 럭키만이 제3세대라 할수있는 단백질 분해효소 저해제를 활발히 연구중이고 나머지는 역전사 효소 저해제를 연구타켓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무튼 선경인더스트리가 이번 역전사 저해제를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식의 임상시험단계를 거쳐 상품화에 성공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화학저널 1994/10/3>